

신종 인플루엔자에 어떻게 대처하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국책연구원 생활을 접고 9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돼지독감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미국은 swine flu에서 H1N1 인플루엔자로 변경하였으나 최근에는 swine flu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혹자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니 용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인플루엔자는 진화하면서 변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변종이 발생할 것인데, '신종'이란 용어를 계속 쓰기에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출퇴근 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저로서는 공기로 감염된다는 이번 인플루엔자A(H1N1)에 긴장하게 됩니다. 통상 사람들은 위협의 원인을 알고 있고 자신의 의지로 조심조심 피해나갈 수 있다면 공포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로도 피해 나갈 수 없다면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루머를 차단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대처가능하다는 심리적인 대책이 유효할지 모릅니다.

세계의 이목은 미국의 대처에 쏠려있습니다. 근래 미국은 인플루엔자의 피크(peak)시점과 백신의 보급시점에 논란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학전문가들은 빠르면 10월에 피크가 올 것이라 예측하는데 백신 보급은 빨라도 11월말이 너무 늦지 않나 우려합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대통령 자문역인 Marc Lipsitch는 피크가 늦게 오더라도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1, 2월과 겹치게 되면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0월 15일까지 5천만 도스의 백신이 정부 창고에 비축되고 이후 매주 2천만 도스씩 들어와 1억9,500만 도스까지 확보할 수 있어 충분히 대처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급되는 시점과 계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CDC(질병관리본부)는 현재를 이미 피크단계로 보고 있고, 백신의 임상실험을 관장하는 NIH(국립보건원)은 백신 보급의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플루엔자의 피크와 백신의 보급 시점, 그리고 치료제 등에 대해 수많은 가정(a lot of ifs)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 상황이라 봅니다. 다만, 공통적인 견해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부분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바이러스도 지난 봄 이후로 변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타미플루(Tamiflu)나 다른 항생제에도 반응을 나타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백신이 세계적인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 WHO의 고민입니다. 치료제로서 타미플루는 WHO가 500만명분을 비축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비축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빠르게 늘어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중의 접촉이 빈번한 혼잡한 곳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염의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는 환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통제하는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쉽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이 곧 생산되고 보급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지나치리 만큼 관심을 갖는 사회적 정서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인플루엔자 대책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의 조류독감, 2003년의 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발생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차례의 위기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방역시스템은 잘 준비되어 있고 이미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은 계절독감(seasonal flu)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독감만으로도 세계적으로 매년 25-50만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인이하게 대처해서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사회적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최병호